

웅진, 세종시 제3공장 건설 “강행”

윤석금 회장,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도 ... 태양광 공장 예정대로 착공

웅진에너지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잉곳·웨이퍼 생산을 위한 제3공장의 착공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6월24일 “세종시에서 추진해오던 웅진에너지 제3공장의 착공을 미루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최종결정을 지켜본 후 방향을 정하겠지만 사업 투자성에 있어 착공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본다”고 전했다.

세종시 투자와 관련해서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지역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무조건 행정부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에 진출하는 웅진그룹의 계열사는 웅진에너지와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3곳으로 웅진에너지는 주로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를 만드는 제3공장과 가정·상업용 태양광발전 시설을 만드는 시스템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5>